

제 163 호

주의 공헌 대축일

1975. 1. 4.

쇼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시】

새 아침

김환식(바오로)

삼백 예순 다섯 물결
격랑(激浪)을 헤쳐 넘어
정작 몸부림 피안(彼岸)은
숨막히는 아슬한 벽(壁)

그믐 밤
바다의 부서짐으로
소용도는 아픔이어

◇ - ◇ - ◇ -

삶이란 본시 이런가라
치부하긴 너무 허거픈데

흰눈 입은 먼 산마루
밤을 벗기는 부엉이 울음

피어린
두 손목으로
감싸 안은 한 젊음

◇ - ◇ - ◇ -

흑룡(黑龍)이 뒹쓸고 간
난파(難破)의 이 해변(海邊)에

높고 크신 「한 말씀」 따라
불기둥 선 「빛 바다」 로

다시금
가슴 달구어
뜻을 다는 새 아침!

(금산 천주교회 신교 분과 위원장)

✽이 주일의 미사✽

가톨릭 기도서 p 237

(1) 개회식

□입당송 보라, 임금이신 주께서 오시니, 나라와 권세와 주권이 그 수중에 있도다.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이사야 60 : 1-6)

하느님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났다.

□총계송 ◎하느님, 만백성이 당신께 조배 드리리이다.
하느님, 당신 슬기를 왕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내리소서! 의로써 당신 백성 다스리게 하시고; 공의로써 그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

□제2독서 (에페소 3 : 2-6 성서 p 440)

이방인들도 약속된 바를 함께 받는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동에서 그의 빛을 보고 조배하러 왔노라.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 : 1-12 성서 p 2)

동쪽나라에서 임금님을 조배하러 왔노라.

□신자들의 기도

1.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신 천주여! 1976년의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륜이 바뀔 때 마다 세상이 더 완전해 가고있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요 온 세상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주여! 이해에도 많은 축복과 은총을 주시도록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 주소서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동쪽에서 주의 빛을 보았기에, 예물을 가지고 주께 예배드리러 왔나이다.

謹 賀 新 年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76. 1. 1

교구장 김 재 덕 주교

1976년도 사목교서

봉사하는 하느님 백성이 됩시다

김 재 덕 주 교

친애하는 교구내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기대되는 197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를 회고하건대 모처럼 4만세기 만에 맞이하는 성년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년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 교구는 지난해를 「현대세계 사목현장의 정신을 연구 실천하는 해」로 정하고 교구내의 모든 하느님 백성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터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면서 미흡하나마 행동으로 실천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리가 요청되는 곳에 한 입이 되어 소리쳤고, 그리스도의 일이 있는 곳에 한 몸이 되어 움직였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필요한 곳에 한 무리되어 모이면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현양되신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앞에는 일하고 개혁해야 할 불모지가 너무도 망망합니다. 사실 지난해에 설정했던 목표는 일조일석에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안에서 진정한 현실을 관찰하고, 새신된 행동을 위한 힘을 모우고, 교회의 신분을 재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이란 참된 그리스도 신자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지난해의 목표를 추진하면서 사목현장의 정신을 집약하여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올해는 「봉사하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자」는 목표 아래 교구내의 모든 하느님 백성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주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代贖物)로 주려 온 것”(마태오 20, 28)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명분과 완성이 있습니다. 현대세계 사목현장은 “교회는 결코 현세적 야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교회의 소망은 성신의 인도로 그리스도 자신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려는 것 한 가지 뿐이다. 진리를 증거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구원하며, 봉사를 받기 보다는 봉사하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려는 것 뿐이다”라고 교회의 사명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예외없이 출생부터가 봉사에서 시작되었고, 죽을 때까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서로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봉사는 인간본성이요, 성장의 법칙이요, 봉사가 없는 문명은 황무지요, 봉사가 중단된 세계는 종말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하느님 백성인 우리는 봉사의 사명을 주님의 계시에 따라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으며, 더욱 철저하고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봉사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징거워진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입니다.”(마태오 5, 13)

봉사와 사랑은 무질서에 대한 방종도 아니요, 불의에 대한 관용도 아니요, 위선에 대한 타협도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는 억압속에 갇혀진 자유를 해방시키고, 불의에 죽은 정의를 소생시키며, 위선에 가리워진 진리를 보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철저히 패배한 그리스도의 침묵을 증언할 때 죽음이 진정한 생명의 원천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우상화하는 망상이 아니라 죽음의 침묵을 살려내시고 패배의 역사를 승리로 이끄신 하느님의 성실하신 능력을 믿는 데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권위는 우상이요, 진리가 없는 노력은 암흑이요, 위장된 사랑의 강요는 폭력이요, 봉사가 없는 물질의 풍요는 착취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마시게 될 물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게 된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요?”(마르코 10, 38)하고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죽기까지 없는 사랑과 성실한 봉사에 정진하는 신분임을 새롭게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교자의 노래를 부를 때 심장이 뜨겁고 순교의 참 기쁨까지 다짐하게 됩니다.

성스러운 제단위의 십자가가 장식품이 되지 않으려면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봉사하는 사제의 생활이 있어야 하고, 완덕에 나아가는 수도생활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봉사로 생활하는 수도자가 있어야 하고, 신앙이 무능력한 자의 안일과 현실도파가 되지 않으려면 봉사가 생활화된 크리스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비록 세상으로부터 숭배를 받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사명임을 자각하고 성실할 때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미소하더라도 이웃과 사회에 용기를 준다면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이요 사랑을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봉사는 이념이 아니라 실천이요, 계획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속에서 진실이라는 미명의 탈을 쓴 어떤 우상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구내의 모든 행정과 기구는 봉사하는 교회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정비되어야 하겠으며, 각 본당과 교구 산하 기관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기능에 노력의 과녁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토대를 기반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재정을 확보하고 행동의 전위대인 사제와 인재를 양성하는데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본당이나 자기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주로 하는 교질화 된 편협한 사고방식과 활동에 중지부를 찍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의 적입니다.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봉사하지 못하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친애하는 교구내의 모든 하느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제도화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 습관화된 신앙을 버립니다. 지난해의 각종 교육을 통해서 다져진 교회의 가르침을 동력으로 하여 우리의 현실속에서 생활화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마태오 28, 20)께서 분명히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해 주시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루카 12, 49)하고 말씀하심 같이 이 사랑의 불이 우리 교구에 활활 타오르도록 다같이 분발합시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당신들도 같이 나누고 또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5, 11)

(천주교 전주교구 교구장)

어 편 편 지

한 상 갑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만큼은 우리 모두 뿌듯한 희망을 안고 빛 속에서 밝고 밝게 살아야겠습니다.
마침 교구장이신 김 주교님의 76년도 사목교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봉사하는 하느님 백성이 됩시다」는 목표 아래 교구내의 모든 하느님 백성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을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여기에 늦게 도착한 편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감사와 봉헌, 그리고 봉사의 정신으로 가득찬 편지입니다. 돈을 뜻있게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숲정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편지에 뜻날이 시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나라에서 부모 형제들과 따뜻하게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부끄러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숲정이 편지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저는 독일에 있는 나양순입니다.

얼마전에 우연히 숲정이 153호에 실려 있는 양병호씨의 "여기에 마스한 손길" 읽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공소 건립에 도움이 될까 하여 보내 드립니다.

그 글을 읽고 저희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박영규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참 좋은 의견이라고 하시면서 물질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 금액(264달러 95센트=127,674원)은 저희 「독일 한인 교우회(韓人敎友會)」 뒤셀돌프(Düsseldorf) 지부에서, 발족된 작년 10월부터 매달의 회비와 주일금을 모아 온 것과 그의 몇몇 분의 도움에 의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처음에 모우게 된 의도 역시 좀 더 가치있고 보람되게 쓰자고 했었는데 귀지(貴紙) 숲정이가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 사람의 앞을 못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저런 소경이 되었느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것은 다만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 뿐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긍지를 가지고 보람되게 사시길 바라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하느님의 풍부한 은총이 그 분들에게 내려 주시길 잠깐 동안이나마 기도 드리겠습니다.

1975. 12. 14에
독일에서 펴워드립니다.

세상에 봉사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성거워진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입니다.

1월은 나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돕는 달입니다.

(본지 편집인)

謹

賀

新

年

新正元旦

숲정이 편집실

※의식 나환자촌 공소

신축 성금 주신 분※

해성학교	김영무	2,000원
노송	박멜라니아	3,000원
노송동	이정순	10,000원
서독에서	나양순외	127,674원
신태인	본당	7,000원
창인동	본당	40,000원
노송	김정생	1,000원

누계 금반지 1점

현금 1,434,974원

제가 개업하였습니다

연탄 직매소

이영희(다두)

□전동성당 골목 전화 ②8466

* 배달원을 급히 모집합니다 *

謹賀新年

❖장가루포 양말 전북 직매점❖

쭈쭈네집

□전주 풍남동 은행나무 골목 ②6508



전주 팔달로 18광주직행원
김종환 1원선시모 T2-3332

* 타자기 수리 *

전주 뉴 타자학원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원장 신송무(바오로)

전화 ② 6664

타자수리, 취업알선, 수시검정

김용길 양복점

교우 여러분과 결혼 예물은

특별 염가 제공

재단사 정병준 (정아우스티노)

전주 중앙동 조흥은행 앞

전화 ② 3519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옆 중앙시장동

(전화 ② 4577)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 1976년 1월 5일 저녁 7시 30분 가톨릭센터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조국에 밝은 빛이 비치도록 월요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 드립니다
2. 가톨릭 전주교구 중, 고 연합회 동계 수련회 : 1976. 1월 5일(13시)~1월 6일(14시) 가톨릭센터 회의실 <참가자격> 교구 내 각 본당 학생회 임원 및 회원
3. ☆종교 방송 안내☆ 전주 서해방송 종교 방송 : 1976년 1월 11일 오전 7시 40분~50분까지. <연사> 전주교구 사목국장 범석규 신부
*남원 K.B.S 종교 방송 : 1976년 1월 11일 오후 4시 20분~30 <연사> 남원 본당 김병엽 신부
4. 제 7차 전주교구 주일학교 교리 교사 연수회 : 1976년 1월 12(월)~15(목) 가톨릭센터에서 <참가비> 1인당 1,300원 많은 본당 교사 선생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이대권 권준용
보좌 신부 김익이 대동상
사도 회장 이대권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2. 방지기 삼회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 30분
3. 금요일 어머니 미사 8일로 변경 (해성 졸업식관계로)
4. 푸리아 월례회 : 다음 주 오후 2시
□영해 예수 구유 헌금 13,75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천혜
사도 회장 조해형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이성숙, 조방지거(덕진) : 각 만원 주계 : 2만원 누계 : 4,290,627원
3. 새 성당 의자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백정효, 노마리아, 임벨라도, 양요안 : 각 5천원 양베리토카 : 만원 소모니카 : 5만원 백안나 : 3천원 신갑인 : 2천원 기타 : 500원 주계 : 25,500원 누계 : 1,250,830원
4. 새 성당 전등 희사하신 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한레지나(왕정공소) : 만원 김테레사(은택) : 만원 <전등 9개 뜻있는 교우 접수 바랍니다>
◎성당 신축 성미 3도 주계 237말
☆축 결혼☆ 1월 10일 12시 신랑 김재곤(라파엘) 신부 권옥기 양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김홍환
사도회장 김홍환

1. 새해 축하식 : 76. 1월 5일(오후 6시) 본당사무실에서 <참가대상> 사도임원, 고문, 구역장, 공소회장단, 감사
2. 덕진 전주교 청년회 발족 : <회장> 김중운 본당 소수 청년 남녀는 전원 회원 가입 바랍니다
3. 신용조합 임원회 : 오늘 공식미사후(월례회 : 다음주)
☆축 결혼☆ 76. 1월 8일 11시 예정 신랑 전갑균(라파엘) 신부 원명녀(할라리아)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상임 위원회 : 공식미사 후
2. 복자 부녀 총회 : 다음 주 공식미사 후
3. 복자 성우회 : 다음 주 공식미사 후
4. 본당 운영이 어려우니 교무금을 속히 납부 바랍니다

(서학동) 전화 ③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박장훈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2. 오늘은 애령회 주일 (애령금 : 47,021원)
3. 중 고등 학생 교리 : 토요일 오후 6시 (종전과 같음) 교리 후 7시 미사 있음
4. 예비자 교리 : 매일, 화, 수, 목, 금 오후 7시 30분 있음
5. 화요일 아침 미사 : 참사회 관계로
☆축 결혼☆ 1월 10일 신랑 장영환(도마) 신부 장길례
□성당 봉헌금 33,390원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한양 보좌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함승천

1. 상임 위원회 : 5일(월) 저녁 7시 30분
2. 유아 세례 : 2시 미사 후
3. 축일표 : 사무실 (세례당 1장씩)
4. 예비자 교리 : 18일 주일부터
5. 신용조합 소식 : 1976. 1. 6~15일까지 자체 검사 및 재무부 감사가 있으니 조합에 통장 제출 대조 확인 바랍니다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 김부수 신부	창제 안료인유	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찾 영성계 어머니 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53,220원
		사도회 월례회	23,760원			사도회 월례회	47,885원
		상황 내조의 밤 개회	6,120원			사도회 월례회	6,210원
		성서 연구 소개 사제 양성 성금 접수 바람	3,615원				
		사도회 월례회	3,770원				
		사도회 월례회	15,330원				
제 2 지구	대 울명동 합	사도회 상임 위원회	5,805원	제 4 지구	중 노덕부서 전	사도회 월례회	59,039원
		사도회, 성심회, 학생회	39,230원			사도회 월례회	25,270원
		사도회 월례회	29,460원			청년회 발족	13,510원
		사도회 상임 위원회	원			사도회 상임 위원회	21,800원
						사도회 월례회	14,720원
						상임위원회	77,970원
제 3 지구	고 금여삼	사도회 월례회	3,430원	제 5·6 지구	무장전남순임	영세 하신 분들께 축하 드립니다	4,360원
		상임 위원회	10,815원				
		교리 강습 실시	2,025원				
		자모회 월례회	15,070원				